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1. 3(일)	
		작 성 문 의	해양교통정책과장 송기진 (Tel. 044-200-2239)
<b>1.3일(일) 15시 (행사종료) 이후 사용</b>			

## “무역 1조달러 재달성을 위해 수출에 정책역량 집중할 것”

- 황교안 총리의 「새해 첫 정책 행보는 수출 현장」, 인천신항서 근로자 격려
- “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회복하고 경제 살릴 것, 함께 힘 모으자”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1.3일(일) 연휴에도 쉼 없이 화물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신항 수출 부두를 방문했다.

○ 작년 한해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어려웠던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수출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새해 첫 정책 행보로 ‘수출현장’을 찾게 된 것이다.

□ 황 총리는 특히,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달성된 무역 1조 달러 성과\*를 올해 다시 이루자는 취지에서 인천신항 수출부두를 방문하였으며,

\* 2011년~2014년까지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나, 2015년에는 11월 기준 8,860억 달러로 1조 달러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○ 이날 수출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“정부는 무역 1조달러 재달성\*을 위해 수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※ 윤학배 해수부차관, 박일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, 박광열 인천해양청장, 유창근 인천항만공사장, 이도희 선광 컨테이너 터미널 대표,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, 심오택 총리비서실장 등 참석

□ 황 총리는 인천신항의 개발현황과 수출입화물 운영현황을 보고 받은 뒤 무인자동화시스템과 원격제어실을 점검한 후,

- 직접 부두로 이동하여 연휴 기간에도 수출화물 선적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새해 덕담을 나눴다.

□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“지난해 우리 수출이 세계교역 부진,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”면서,

- “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”라고 강조하고,

- “정부는 수출회복을 위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는 등 수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무역 1조달러를 다시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\* '16년 수출은 전년대비 2.3% 증가한 5,440억 달러, 수입은 전년대비 4.8% 증가한 4,610억 달러로 830억 달러 무역흑자 전망(무역협회, '15.12.18)

□ 황 총리는 이어, “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, 민생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”며,

- “우리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, 지난해 발효된 한-중 FTA, 한-베트남 FTA 등을 우리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해 나갈 것” 당부하였다.

□ 특히 황 총리는 인천신항은 개장('15.6월) 이후 물동량\*이 꾸준히 늘고 있어 한국 경제와 수출 도약의 전지기지라고 평가하면서

\* 개장 후 월평균 전월대비 6.4% 물동량 증가 : '15년 6월 34만 TEU → 7월 36만 TEU → 8월 40만 TEU → 9월 40만 TEU → 10월 46만 TEU → 11월 47만 TEU

- “대형선박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발된 인천신항은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항만시설”이라고 강조하고,
  - \* 기존 인천항에 입항 가능한 선박은 최대 6만톤급(5,500 TEU)에 불과했으나, 인천신항 개장에 따라 최대 12만톤급(1만 1,000 TEU)까지 입항 가능
- “인천신항이 높은 생산성 등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고부가가치 항만서비스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”고 주문하였다.

## 참고 1

##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

### □ 사업 개요

- 사업목표 : 인천항을 대중국 무역 등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개발
- 사업기간/사업비 : '05년~'20년/3조 6,134억원
- 사업규모
  - (정부) 호안(15.9km), 진입도로(6.8km), 관리부두 1식, 부지조성 및 준설 등
  - (민자) 안벽 12선석(컨 4천×2, 3천×2, 2천×8), 호안 150m, 부지조성 및 준설 등

### □ 단계별 개발계획

구 분		전체('05~'30)	1단계('05~'20)	장래('21~'30)
계	사업비(억원)	56,912	36,134	20,778
	사업량(선석)	29	12	17
	효과	'컨' 534만TEU, 잡화 262만톤	236만TEU	298만TEU, 262만톤
정부	사업비(억원)	16,677	15,427	1,250
	사업량	호안 : 15,903m	15,903m	-
		진입도로 : 6,82km	6.82km	-
		관리부두 : 710m	410m	300m
		배후단지 : 155만㎡	53만㎡	102만㎡
사업비(억원)	40,235	20,707	19,528	
민자	사업량	'컨'부두 : 7.65km(25선석)	3,300m(12선석)	4,350m(13선석)
		잡화부두 : 910m(4선석)	-	910m(4선석)
		배후단지 : 464만㎡	159만㎡	305만㎡

### 《 인천신항 개발 조감도 》



## 참고 2

## 인천신항 I -1단계 컨테이너부두 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구 분		A터미널	B터미널	비 고
시설규모		3천TEU 1선석 2천TEU 2선석	3천TEU 1선석 2천TEU 2선석	하역능력 120만TEU
사업내용		안벽 800m, CY 48만㎡ 하역장비 및 운영건물 1식	안벽 800m, CY 48만㎡ 하역장비 및 운영건물 1식	
'컨'장치능력		7,644TGS	7,492TGS	
하역 장비 배치 계획	RMQC	7	7	22열
	ARMGC	28	24	5단9열 (원격)
	Y/T	41	47	
	Y/C	63	89	
	R/S	3	3	
공사기간		'09. 4 ~ '17. 10	'09. 4 ~ '16. 12	
운 영 사		한진 인천컨테이너터미널(주)	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(주)	

### □ 전경사진



- 수출금융 확대 등 수출지원을 量·質적으로 업그레이드
  - 수은·무보 등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대(251→271조원) 하고, 전대금융\* 확충(20억불) 등 新시장·유망업종 지원 강화
    - \* 수출입은행이 외국 현지 은행에 돈을 빌려준 뒤 그 은행이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현지 기업에 다시 대출해 주는 제도
  - 수은·무보·KOTRA 등 수출지원기관 기능을 新시장·유망 품목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one-stop 지원체계 구축
- 글로벌 수요 급증 유망품목을 新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
  -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화장품, 식료품, 유아용품, 생활용품, 패션·의류 등 5대 유망품목의 맞춤형 집중 육성 추진
  - 디스플레이, 반도체 장비, 2차전지 원재료 등 신성장산업 장비·부품의 수입관련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
  - 주력산업 사업재편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
- 한-중 FTA 발효를 계기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강화
  - 한-중 FTA 활용도 강화를 위해 차이나데스크(무협)를 확대 개편하여 판로개척,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등 종합 지원
    - 한·중 FTA 발효 초기효과 극대화를 위해 인증지원\* 강화
      - \* '15.8월부터 원산지 인증 수출자(세관장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)가 (假)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, 발효후 정식인증으로 신속 전환
  - 우량기업 M&A 및 현지 생산기지·유통망 구축을 위한 중국 시장 진출프로그램\* 마련(4조원) 등 對중국 진출지원 확대
    - \* 캐피탈콜(투자처가 생기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)로 운영(무역협회)